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국민의 국제테러리즘 피해사례 경향분석

이대성* · 안영규**

요 약

현재 한국은 세계 190여개 국가와 수교하였고, 113개 국가에 해외공관을 개설하였으며, 한국군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다국적군 평화활동·국방협력활동·UN평화유지활동 등을 통하여 그 위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정치·종교·이념 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테러조직·무장단체 등과 개인·경제적 원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테러리즘의 피해사례에 대한 경향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시사점과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주체는 무장단체, 극단주의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 및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피해대상이 과거와 비교하여 경성목표(hard targets)에서 연성목표(soft targets)로 변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 스스로가 여행금지 등의 지역을 가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Analysis on the tendency of international terrorism against Koreans occurred in overseas countries

Lee, Dae Sung* · Ahn, Young Kyu**

ABSTRACT

Korea ha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190 countries in the world. It opened its diplomatic offices in 113 countries. Korea raised its status in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multinational force peace activities, national defense cooperation activity and UN peace maintenance activity for the maintenance of world peace. But there have been violent crimes by terrorist organizations and armed groups that try to achieve their political, religious and ideological goals greatly damaging Koreans working in overseas countries. This research studied the tendency of international terrorism against Koreans. The suggestion and conclusion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shows that armed groups and extremists have threatened and attacked Koreans in overseas countries. But there aren't enough personnel who can immediately and correctly analyze and respond the threats and attacks. So it is urgent to raise experts continually and develop manuals to respond the attacks. Next, the damaging targets in overseas countries have been changed from hard targets to soft targets. There could be a limit in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of people by governmental agencies. So it is necessary for people to show mature civic awareness not going to a tourism-prohibited area.

Key Words: Terror, Guerrilla Warfare, Quasi-Terrorism, Terrorism, Counter-Terrorism.

접수일(2015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2015년 12월 23일)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주저자)

**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공동저자)

1. 문제의 제기

현재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공동체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글로벌(global)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전(全)세계 190개 국가와 수교하였고, 이 중에서 113개 국가에 해외공관을 개설하여 외교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한국군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다국적군 평화활동·국방 협력활동·UN평화 유지활동 등을 통하여 그 위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다

해외진출기업들도 이질적인 정치, 종교, 사회 등의 환경 속에서 다양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해외진출 기업의 사업은 시간, 공간, 문화 등의 차이에 관한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며, 상생(相生)적 협력을 통하여 사업적 효과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외진출사업은 해외시장이 요구하는 기준과 상대국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역마다 다른 지정학적 여건·자원·문화·정서 등에서 오는 다양한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1][2]. 이로 인하여 정치·이념·종교 등의 원인으로 인한 게릴라전(guerrilla warfare)이나 국제테러리즘(international terrorism)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관광공사 출입국 관광지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환율변동 등의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지표가 의미하는 것은 해외여행이 단순한 여가의 형태가 아닌, 일상적인 삶의 일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및 재산상의 위험 가능성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난 등으로 인한 위협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4]. 실질적인 위해 유형으로는 개인 또는 경제적 원인에 의한 준-테러리즘(qua si-terrorism)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발생한 다양한 위협요인 중에서 국제테러리즘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분석을 위한 틀

2.1. 분석의 대상

이 연구에서는 국가정보원 산하 테러정보통합센터(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의 ‘우리국민 주요 피해사례(2005년~2014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5]. 발생지역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태평양, 유럽·미주의 4개 권역(圈域)으로 구분하였고, 총26개 국가에서 73건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우리나라민의 주요피해 발생국가 및 건수

지역	국가 (26)	발생건수 (73)
아프리카	이집트	3
	리비아	1
	세네갈	1
	소말리아	16
	나이지리아	11
	수단	1
중동	레바논	1
	이라크	6
	팔레스타인	1
	예멘	3
	아프가니스탄	5
	파키스탄	5
아시아·태평양	인도네시아	2
	네팔	1
	인도	2
	필리핀	2
	동티모르	1
	스리랑카	1
	미얀마	1
유럽·미주	러시아	3
	우크라이나	1
	그리스	1
	독일	1
	헝가리	1
	미국	1
	아이티	1

2.2. 분석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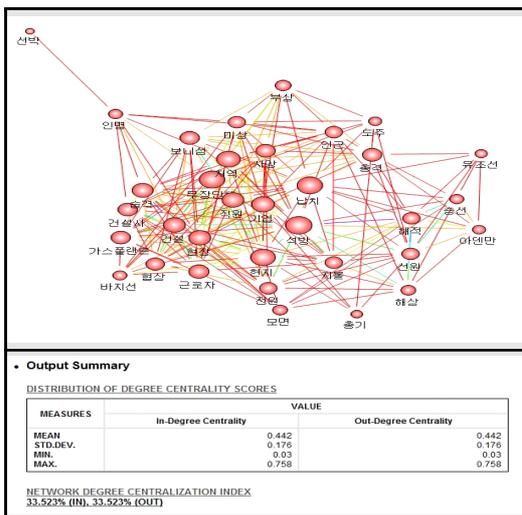
KrKwic(Korean Key Words In Context)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 Loet Leydesdorff 교수가 개발한 ‘Full Text’ 소프트웨어(software)를 박한우 교수가 한국어 분석을 위해 재개발한 것이다[6].

사회네트워크 분석(social-network analysis)전문기업인 (주)사이람(Cyram)은 2000년 창립되었고, 전(全)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SNA 전문소프트웨어 NetMiner를 2001년 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최고의 SNA 전문소프트웨어로 자리 잡고 있다[7].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NetMiner는 UCINET과 KrackPlot의 장점을 통합한 프로그램으로 관계 데이터에 대한 탐색적 분석과 시각화 작업을 할 수 있다. 또한 NetMiner는 네트워크(network) 및 데이터(data) 분석이 필요한 온라인(on-line) 네트워크, 조직(organization) 네트워크, 그리고 범죄(crime) 네트워크 분석 등 다양한 연구영역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8].

3. 우리나라민의 국제테러리즘 피해사례에 대한 경향분석

3.1. 아프리카지역 피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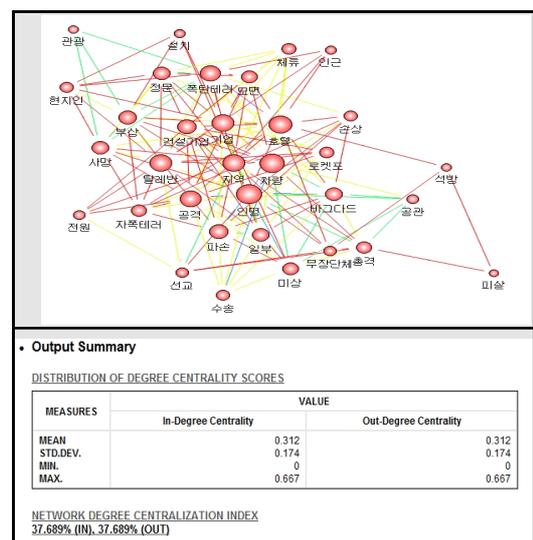
<그림 1> 아프리카지역 연결중심성 결과값

<표 2> 아프리카지역 연결중심성 분석값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석방	0.757576	0.757576
납치	0.727273	0.727273
무장단체	0.727273	0.727273
현지	0.69697	0.69697
지역	0.666667	0.666667
기업	0.636364	0.636364
건설	0.606061	0.606061
직원	0.606061	0.606061
현장	0.575758	0.575758
습격	0.545455	0.545455
근로자	0.515152	0.515152
건설사	0.484848	0.484848
보니섬	0.484848	0.484848
사망	0.484848	0.484848
총격	0.484848	0.484848
협상	0.454545	0.454545

아프리카지역에 발생한 우리나라민의 국제테러리즘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표 2>의 내용과 같다. 첫째,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석방”, “납치”, “무장단체”이었고, “현지”, “지역”, “기업”, “건설”, “직원”, “현장”, “습격”, “사망”, “총격”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3.2. 중동지역 피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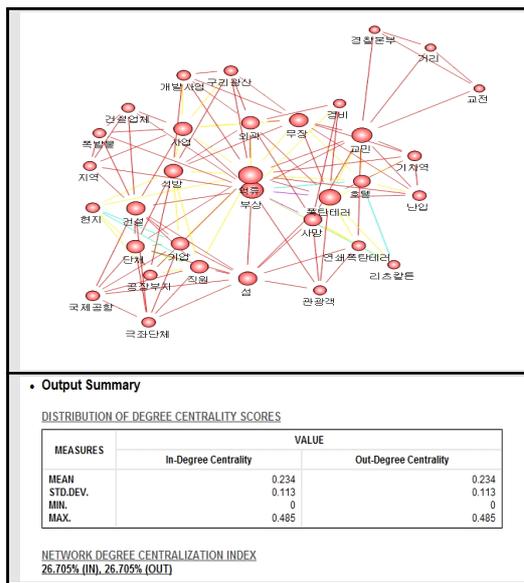
<그림 2> 중동지역 연결중심성 결과값

<표 3> 중동지역 연결중심성 분석값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인명	0.666667	0.666667
차량	0.636364	0.636364
호텔	0.575758	0.575758
탈레반	0.545455	0.545455
기업	0.545455	0.545455
지역	0.545455	0.545455
공격	0.515152	0.515152
폭탄테러	0.484848	0.484848
파손	0.424242	0.424242
건설기업	0.424242	0.424242
부상	0.393939	0.393939
바그다드	0.363636	0.363636
일부	0.363636	0.363636
정문	0.363636	0.363636
사망	0.333333	0.333333

중동지역에 발생한 우리나라민의 국제테러리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표 3>의 내용과 같다. 첫째,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인명”, “차량”이었고, “호텔”, “기업”, “지역”, “공격”, “파손”, “부상”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3.3. 아시아·태평양지역 피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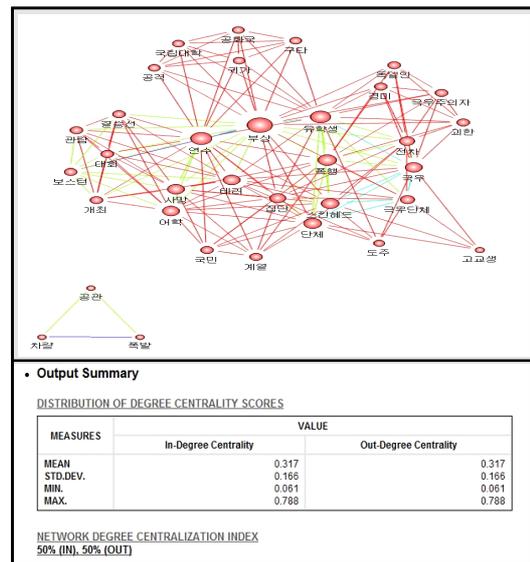
<그림 3> 아·태지역 연결중심성 결과값

<표 4> 아·태지역 연결중심성 분석값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억류	0.484848	0.484848
부상	0.454545	0.454545
폭탄테러	0.424242	0.424242
교민	0.363636	0.363636
사업	0.333333	0.333333
섬	0.333333	0.333333
석방	0.333333	0.333333
건설	0.333333	0.333333
무장	0.333333	0.333333
사망	0.30303	0.30303
기업	0.30303	0.30303
외곽	0.30303	0.30303
직원	0.30303	0.30303
단체	0.30303	0.30303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발생한 우리나라민의 국제테러리즘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표 4>의 내용과 같다. 첫째,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억류”, “부상”, “폭탄테러”이었고, “교민”, “사업”, “석방”, “무장”, “사망”, “외곽”, “직원”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유럽·미주지역 피해분석



<그림 4> 유럽·미주지역 연결중심성 결과값

<표 5> 유럽·미주지역 연결중심성 분석값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부상	0.787879	0.787879
연수	0.636364	0.636364
유학생	0.606061	0.606061
폭행	0.515152	0.515152
단체	0.484848	0.484848
스킨헤드	0.484848	0.484848
극우	0.454545	0.454545
테러	0.454545	0.454545
사망	0.454545	0.454545
어학	0.454545	0.454545
집단	0.393939	0.393939
전차	0.363636	0.363636
극우단체	0.333333	0.333333

유럽·미주지역에서 발생한 우리국민의 국제테러리즘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4>와 <표 5>의 내용과 같다. 첫째,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부상”이었고, “연수”, “유학생”, “폭행”, “단체”, “스킨헤드”, “극우”, “어학”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시사점 및 결론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국민의 국제테러리즘 피해사례에 대한 패턴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지역의 공격주체는 무장단체로 밝혀졌고, 피해대상은 진출한 한국기업과 현지에 파견된 건설근로자 등이었다. 공격유형은 총격, 습격 등이었으며, 피해유형은 현장 직원과 근로자 등이 사망하거나 부상 및 납치되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 납치된 직원과 근로자들이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고 석방되는 경우가 가장 심각한 피해사례로 도출되었다.

둘째, 중동지역의 공격주체는 탈레반 등과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로 나타났고, 피해대상은 호텔, 차량, 기업 등이었다. 공격유형은 폭탄테러로 밝혀졌으며, 피해유형은 건설기업의 장비 등을 파괴하거나 해외기업인과 근로자 등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공격주체는 무장단체로

밝혀졌고, 피해대상은 교민, 기업인, 현지에 진출한 기업 직원 등이었다. 공격과 피해유형은 폭탄테러, 무장 공격 등으로 인한 사망과 부상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질을 납치하여 억류하거나 거액의 몸값을 받고 석방하는 사례도 있었다.

넷째, 유럽·미주지역의 공격주체는 극단적 극우단체 또는 국수주의자인 스킨헤드로 나타났고, 공격대상은 어학연수생, 유학생이었다. 공격과 피해유형은 폭행 등으로 인한 사망과 부상으로 밝혀졌다.

위의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해외에서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주체가 반군(叛軍)에 의한 게릴라전(guerrilla warfare)인가, 테러범(terrorist)에 의한 테러리즘(terrorism)인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 측면의 준-테러리즘(quasi-terrorism)인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현장에 배치된 전문가들이 발생 국가의 유관기관과 공조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매뉴얼(manual)도 함께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피해 대상이 과거와 비교하여, 경성목표(hard targets)에서 연성목표(soft targets)로 변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대사관, 영사관 등과 같은 정부 중요 시설이었다면, 현재는 정치·종교·이념 등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무고한 현지 교민, 해외 진출기업, 근로자, 관광객, 유학생 등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교부 등과 같은 국가기관이 매스 미디어(mass media)를 적극 활용한 홍보와 캠페인(campaign)등을 함과 동시에, 시민 스스로가 여행 금지·제한·자체 지역을 가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윤용선, “해외진출 기업의 문화갈등에 관한 연구: 해외파견 관리자의 이문화(異文化) 관리를 중심으로”, 국제연구, 12(1): 209-226, 2008.
- [2] 심옥진, “해외진출기업의 이슈”, 공학교육과 기술, 10(3): 24-26, 2003.
- [3] 김홍규·홍장선, “해외여행자의 여행동기와 태도 유형연구: Q 방법론적 접근”, 관광경영연구, 13(4): 51-75, 2009.
- [4] 권오성, “방한중국인의 해외여행자리스크 관리성과 분석”, 관광경영연구, 18(4): 25-39, 2014.
- [5] <http://www.tiic.go.kr>; 2015.3. 5.
- [6] 박한우·Loet Leydesdorff,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5): 1377-1387, 2004.
- [7] <http://www.cyram.com>; 2015. 3. 7.
- [8] 김용학, 「사회 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2013.

[저자소개]



이 대 성 (Lee, Dae Sung)

1997년 동국대학교 법학사
2000년 동국대학교 법학석사
2004년 동국대학교 형사학박사
現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email : dorian3145@daum.net



안 영 규 (Ahn, Young Kyu)

2001년 동국대학교 법학사
2008년 동국대학교 경찰학석사
2012년 동국대학교 경찰학박사
現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email : ayk93@hotmail.com